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 -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배은주**

논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과 부모역할지능 및 종교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 특히,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동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202명이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Epstein(1983)이 개발한 부모-도래척도를 김정주(2009)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역할지능은 현미숙(2004)이 개발한 것이며, 종교적 안녕감은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영적 안녕감 척도를 이진화(2012)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신뢰도,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에 대해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종교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경우에 $\beta = -.008$ 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과 부모역할지능의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179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한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양육하고,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종교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479).

** 성결대학교 신학부 강사

2016년 5월 13일 접수, 6월 11일 최종수정, 6월 13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기독교(목회)상담, 청소년상담 및 가족상담과 개연성을 갖고 아버지-자녀 관계 및 기독교신앙과의 연관성을 구조적으로 탐색하여 그 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론 연구 및 적용적 연구를 수행할 기독교(목회)상담학 분야에 학문적 자극을 주고,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기독교인, 아버지, 자녀,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부모역할지능, 종교적 안녕감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TV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차지하고, 책과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연일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가정에서 여전히 다수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 여가활동에 몰두하므로 자녀양육에서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체적, 관계적, 영적으로 부재하게 되면, 그 부정적 결과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최근 남매가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조선일보, 2016년 5월 11일). 살해 동기는 어머니와 남매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당한 가정폭력이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반영으로 아버지가 사회문화적으로 인기있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현재 자신의 가족에서 부모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면 만 18세까지이고,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면 만 19세까지이다. 또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출생부터 7세까지 영유아기, 7세부터 12세는 학령기, 13세~18세를 청소년기로 각각 구분한다(임경수, 2004: 169).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기의 개념을 8세부터 19세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합의한다.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유년기를 재경험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형성하고, 아버지역할을 확립해 나간다(홍길희·황정해, 2007: 111-132).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부성부재가 발생한다(Nouwen, 1972: 27). 부성부재를

경험한 자녀는 의존적이며, 책임감 결여 및 사회부적응 등을 초래할 수 있다(Rice, 2008; 배은주, 2010). 자녀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경험은 자녀의 일생을 좌우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75년에 걸쳐 268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발달을 추적조사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성공적 삶에는 어린 시절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Vaillant, 2013). 특히, 아동기에 아버지의 영향은 향후 자녀의 노년기에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Sigmund Freud)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서 의미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Freud, 2014: 324-329). 칼 융(Carl G. Jung)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는 신화적 인물인 동시에 하나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 어머니가 심층적 무의식에 존재한다면 아버지는 의식적이며, 영적이고, 질서와 의미를 구현하는 존재이다(Tacey, 2008: 33-35). 이와 같이 자녀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해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역할은 자녀에게 중요한 모델이 된다. 따라서 남성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전인격적 남성으로 성장해야 하며,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녀를 성숙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아버지역할은 그들의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경험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현세대의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전세대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개연성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을 자녀양육에 전이한다(Simons, Beaman, Conger and Chao, 1992; 김정주, 2009; 권영입, 2012).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건강한 사회화 과정을 거쳤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긍정적인 아버지역할을 수행한다. 또 아버지가 아동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수용되고 독립심을 성취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자녀에게 아버지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김정주, 2009; 장금석, 2011).

반면,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사회화 과정을 경험했다면,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은 긍정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elsky, 1984). 또한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SBS 뉴스, 2015년 12월 21일).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고, 아버지가 그 시체를 훼손하여 집안 냉동실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KBS 뉴스, 2016년 1월 29일). 아버지를 상담했던 범죄심리 분석가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라서 아들을 그렇게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고, 학대를 정상적인 행위로 각인시키게 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인 중에는 아버지의 신앙과 종교적 성향이 영향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심을 통해 내적인 힘이 증가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기 때문이다(Ellison, 1983: 330-340; Tweedie, 2008: 18, Vaillant, 2008: 67). 종교는 일종의 개인적 신앙심이며(Smith, 1981), 인간에게 궁극적인 마음의 안정을 준다(Fromm, 1971).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개인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어떤 행동에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 종교적이라는 표현은 형식의 경계를 벗어나 인간 속에 내면화되는 궁극의 상태를 의미한다(Dewey, 1969). 그러므로 아버지의 종교적 성향과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역할모델이 되어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되거나 자녀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갖거나 아예 신앙을 외면할 수도 있다(Clark, 1988: 463-472; 한내창, 2010: 3-23). 아버지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자녀의 삶에 반영되며, 아버지역할에 영향을 끼친다(Canfield, 1992: 179-183; 장금석, 2011; 김성원, 2015). 그러므로 아버지의 건강한 영적 상태는 자녀양육에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기독교신앙은 자녀양육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MacArthur, 1998: 11-12; Whitney, 2001: 13, 안석, 2010: 106). 기독교신앙을 가진 아버지는 갈등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경적 지식과 교훈을 통해 신앙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기독교신앙에 의한 종교적 안녕감은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부모역할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Simmons, 1991: 40).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때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 역할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부모역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종교적 신념과 태도가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부모역할을 학습하고 수행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종교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종교적 안녕감이 갖는 예방적이며 대안적 차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종교적 신념과 태도가 양호할수록 자신의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의

중요성과 종교가 갖는 영향력을 재고하면서 아버지-자녀 관계를 향상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객관적인 자료와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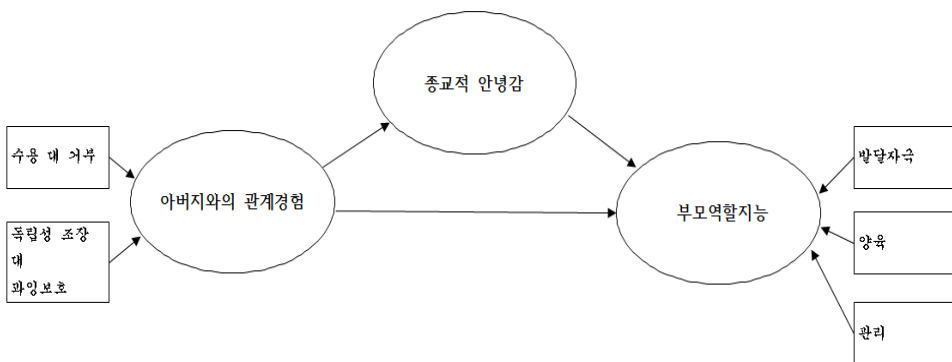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종교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202명이다. 그들은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며,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이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사전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각 가정으로 배부되었고, 교회에서 직접 실시하기도 했다. 회수된 설문지는 담당자가 일괄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30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50부가 수거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 총 20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이 도구는 엡스테인(Epstein, 1983)이 개발한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이다. 원래 70문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수용 대 거부 차원, 부모이상화 차원, 또래상호작용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전현진(199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만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이상화 차원과 또래 상호작용 차원은 제외하였다. 또 김정주(2009)도 아버지의 관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수용 대 거부 차원만 사용하여 타당화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내용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1개이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로부터 더 많이 수용되고, 독립심이 촉진되었음을 뜻한다. 신뢰도는 전현진(1997)의 연구에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차원 $\alpha = .75$, 수용 대 거부 차원 $\alpha = .83$ 이며, 김정주(2009)의 연구에서 수용 대 거부차원 $\alpha = .91$,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차원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 대 거부 차원 $\alpha = .68$,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차원 $\alpha = .62$ 로 나타났다.

(2) 부모역할지능

이 도구는 현미숙(2004)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자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대처 행동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현미숙(2004)은 문헌과 관련 국내외 척도를 분석하고, 관련 사례의 표집 및 내용타당도, 2회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3개의 집단을 상황적으로 분류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관리, 발달자극의 3요인이 나뉘고, 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 융통성, 거부, 수용, 통제의 총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44문항이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지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신뢰도는 현미숙(2004)의 연구에서 $\alpha = .93$, 본 연구에서는 $\alpha = .92$ 로 나타났다.

(3) 종교적 안녕감

이 도구는 팔로우지안(Paloutzian)과 엘리슨(Ellison, 1982)의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이진화(2012)가 타당화한 것이다. 하위요인은 실존적 안녕감과 종교적 안녕감이며,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점수는 리커트(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이진화(2012: 25)의 연구에서 $\alpha = .93$ 로 본 연구에서는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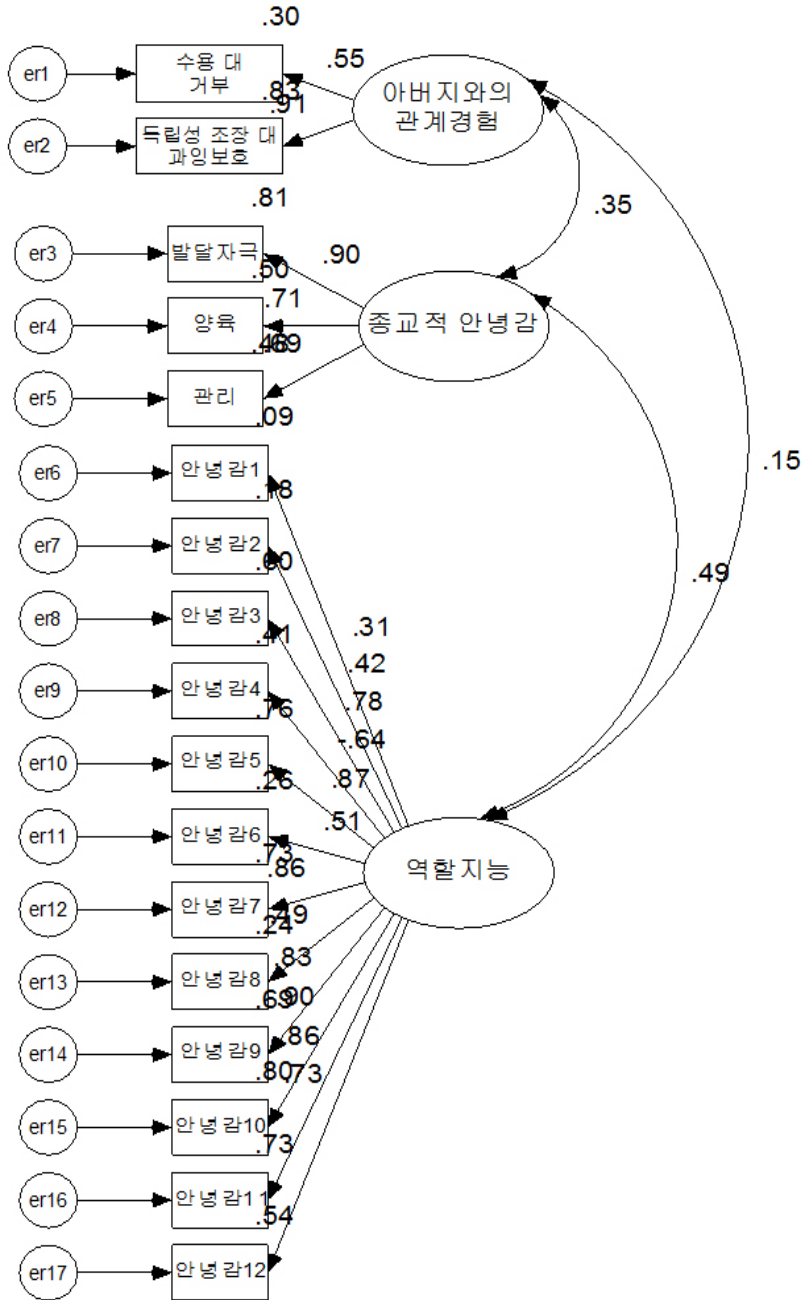
		빈도	%
연령	30세 미만	7	(3.5)
	31-40세	51	(25.2)
	41세 이상	144	(71.3)
거주지	서울특별시	86	(42.6)
	경기도	116	(57.4)
학력	중학교 졸업	0	(.0)
	고등학교 졸업	24	(11.9)
	대학교 졸업	122	(60.4)
	대학원 졸업	53	(26.2)
	기타	3	(1.5)
직업	무직(학생 포함)	3	(1.5)
	시간제 근무	5	(2.5)
	사무직	45	(22.3)
	관리직	34	(16.8)
	전문직	86	(42.6)
	판매서비스직	18	(8.9)
	생산근로	8	(4.0)
	단순노무	3	(1.5)
구원의 확신	있다	163	(80.7)
	없다	39	(19.3)
자녀의 수	1명	34	(16.8)
	2명	125	(61.9)
	3명	41	(20.3)
	4명 이상	2	(1.0)
일주일 동안 자녀와의 대화시간	4시간 미만	102	(50.5)
	4-7시간	53	(26.2)
	8-11시간	26	(12.9)
	12시간 이상	21	(10.4)
아버지와 생활	함께 생활함	170	(84.2)
	함께 생활하지 않음(사별)	16	(7.9)
	함께 생활하지 않음(부모님의 별거 또는 이혼)	6	(3.0)
	함께 생활하지 않음(학업 또는 유학)	6	(3.0)
	기타	4	(2.0)
	합계	202	(100.0)

〈표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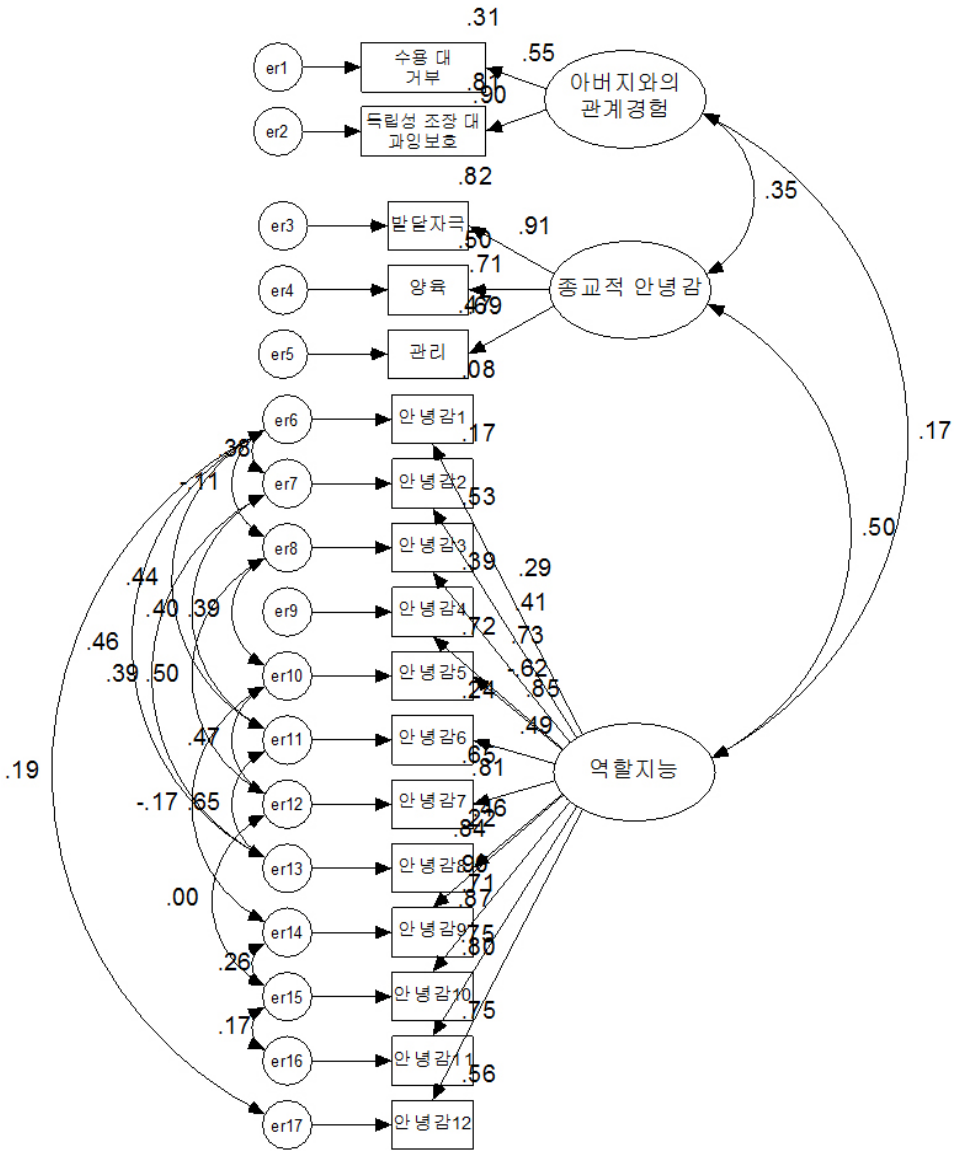
<표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41세 이상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경기도 57.4%, 서울시 42.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 대학교 졸업 60.4%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문직 42.6%, 사무직 22.3%, 관리직 16.8%, 판매서비스직 8.9% 순으로 나타났다. 구원확신은 80.7%가 확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 동안 자녀와 대화시간은 4시간 미만 50.5%, 4-7시간 26.2%, 8-11시간 1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경우가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

아버지와 관계경험, 부모역할지능, 종교적 안녕감의 관계구조가 경험적 자료와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2]와 [그림3], <표2>와 <표3>에 제시하였다.



[그림2] 요인에 대한 초기모형 집중 타당성 분석결과



[그림3] 요인에 대한 수정모형 집중 타당성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독립 대 과잉 ←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902	1.000			0.729	0.796
수용 대 거부 ←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555	.496	.167	2.976*		
관리 ← 종교적 안녕감	.687	1.000			0.767	0.883
양육 ← 종교적 안녕감	.708	1.091	.122	8.9036***		
발달자극 ← 종교적 안녕감	.905	2.819	.292	9.6406***		
종교적 안녕감12 ← 부모역할지능	.745	1.000			0.563	0.897
종교적 안녕감11 ← 부모역할지능	.866	1.362	.108	12.6046***		
종교적 안녕감10 ← 부모역할지능	.897	1.388	.107	12.9726***		
종교적 안녕감9 ← 부모역할지능	.841	1.265	.104	12.1266***		
종교적 안녕감8 ← 부모역할지능	.464	.591	.091	6.4786***		
종교적 안녕감7 ← 부모역할지능	.808	1.354	.116	11.6476***		
종교적 안녕감6 ← 부모역할지능	.485	.636	.094	6.7856***		
종교적 안녕감5 ← 부모역할지능	.848	1.348	.109	12.3126***		
종교적 안녕감4 ← 부모역할지능	-.621	-.873	.099	-8.8066***		
종교적 안녕감3 ← 부모역할지능	.727	1.217	.117	10.3776***		
종교적 안녕감2 ← 부모역할지능	.414	.533	.093	5.7566***		
종교적 안녕감1 ← 부모역할지능	.287	.390	.094	4.1476***		

*p < .05, **p < .01, ***p < .001

〈표2〉 전체 요인별 집중 타당성 분석결과

〈표2〉는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 간의 평균분산추출량이다. 모든 연구변인을 일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다차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이 측정도구로서 타당성을 갖는 것이 입증되었다.

	χ^2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초기모형	536.08	.134 (.123-.146)	4.621	.763	.802	.731	.646	.768	.804
수정모형	183.08	.064(.049-.239)	1.813	.919	.961	.908	.861	.948	.962

〈표3〉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그림2], [그림3]과 같이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가설에 적합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 구모형의 경우에 다소 수치가 적합도에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의 공변량, 잔차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차항 등을 연결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83.08$ p=.000, Q=1.813, RMSEA=.064,

NFI=.919, CFI=.961, GFI=.908, AGFI=.861, TLI=.948, Delta 2=.962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AGFI는 .8점대로 나타났으나, 다른 수치가 높게 나타나 적합도는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각 측정단위별 척도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수용-거부	독립-과잉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발달자극	양육	관리	부모역할기능	종교적 안녕감
수용:거부	1							
독립:과잉	.500***	1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876***	.855***	1					
발달자극	.215**	.278**	.278**	1				
양육	.061	.208**	.208**	.642***	1			
관리	.066	.284***	.284***	.618***	.498***	1		
부모역할기능	.162*	.302***	.302***	.942***	.803***	.781***	1	
종교적 안녕감	.132	.165*	.165*	.439***	.318***	.338***	.442***	1

*p < .05, **p < .01, ***p < .001

<표4> 측정요인별 상관관계 결과

<표 4>는 측정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부모역할기능과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의 상관관계는 r=.302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관계경험과 종교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r=.165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교적 안녕감과 부모역할기능의 상관관계는 r=.442로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연구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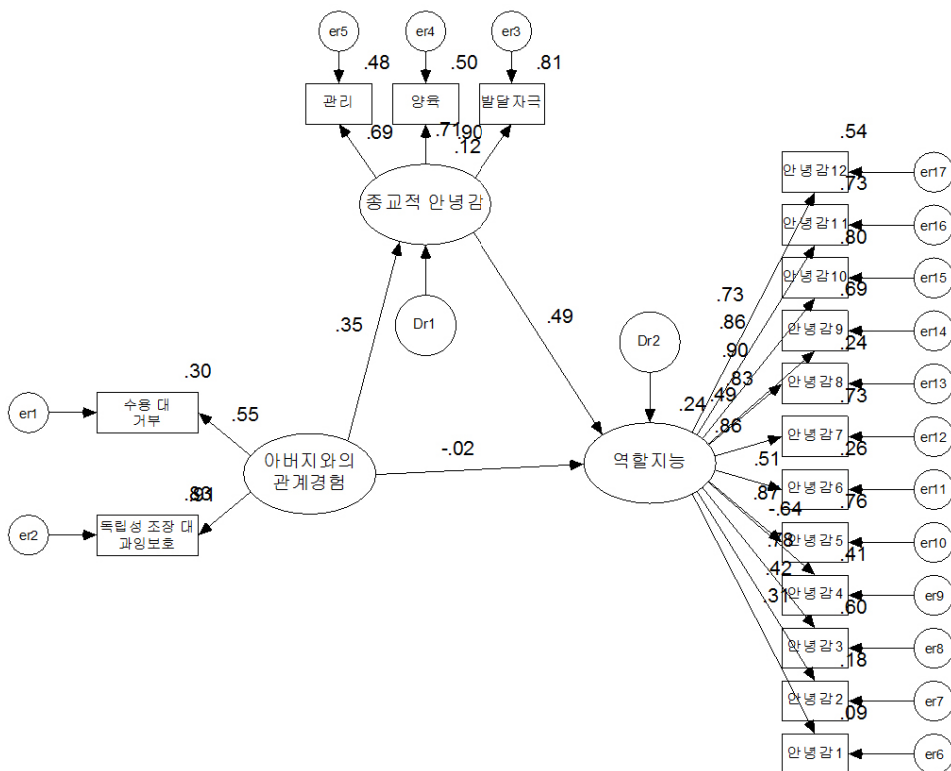
(1) 측정모형 및 경쟁모형의 비교 검증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계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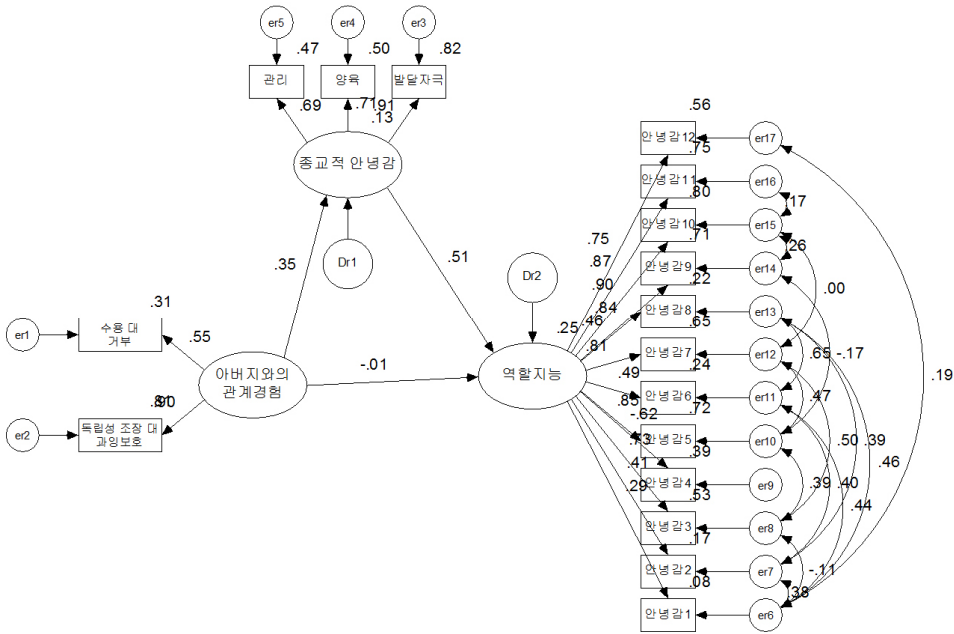
을 위하여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수정모형의 경우에 적합도는 NFI .919, CFI .961, GFI .908, AGFI .861, TLI .948, RMSEA .064로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5>, [그림4], [그림5]와 같다.

	χ^2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초기모형	536.08	.134 (.123-.146)	4.621	.763	.802	.731	.646	.768	.804
수정모형	183.08	.064 (.049-.078)	1.813	.919	.961	.908	.861	.948	.962

<표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그림4] 초기모형



[그림5] 수정모형

(2) 측정모형 간 경로계수

- 연구문제 1.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부모역할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종교적안녕감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에 따라 부모역할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P
종교적 안녕감 ←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355	2.486	.939	2.646**	.008
부모역할기능 ← 종교적 안녕감	.505	.147	.027	5.495***	.000
부모역할기능 ←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008	-.016	.161	-.101	.920

p < .01, *p < .001

<표6>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종교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과 부모역할지능은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높을수록 종교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오면 완전매개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미하면 부분매개로 본다.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종교적 안녕감	부모역할 지능	종교적 안녕감	부모역할 지능	종교적 안녕감	부모역할 지능
아버지와의 관계경험	.355**(.008)	-.008(.991)	.355**(.008)	-.008(.991)	.000	.179**(.006)
종교적 안녕감	.000	.505*(.011)	.000	.505*(.011)	.000	.000
부모역할지능	.000	.000	.000	.000	.000	.000

*p < .05, **p < .01

<표7> 매개효과 구조모형 부트스트랩(Bootstrap)분석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가설검증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비정상성 자료로 추정 가능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회 반복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의 경우에 $\beta = -.008$ 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과 부모역할지능의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179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기에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현재 자신의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부모역할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간에 종교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자녀 관계는 일차적 인간관계 과정임을 전제하며, 아버지의 종교적 신념과 태도가 부모역할에 미치는 개연성을 분석하여 상담이론 정립과 상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종교적 성향과 부모역할에 연관된 주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과학적 검증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도전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적이고 독립성을 조장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정주(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독립성을 조장하고, 수용적일수록 부모역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반대된다. 김정주(2009)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에 상이점이 나타났다. 즉,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와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이므로 자신의 경험을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라 종교적 안녕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감정과 태도에 수용적이고 독립성을 조장할수록 자녀의 종교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기독교신앙인일수록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장금석, 2011). 셋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종교적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확신할수록 부모역할을 더욱 유능하게 실행한다는 것이다. 장금석(2011)의 연구에서 기독교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신앙경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율적 양육태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부모가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직분일수록, 신앙심이 깊을수록, 부부가 모두 기독교신앙인일수록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성원, 2015). 넷째, 아버지의 아동기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긍정적인 신앙심 고취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감정과 태도에 수용적이면서 독립성을 지지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기독교(목회)상담학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계획되어 개인의 호소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집단상담을 통해 공감과 역동성을 경험하므로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손상되었다면, 그 상실과 상처에 대한 심리적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과거 심리적 외상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손상이 해결되지 않은 자녀는 향후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부모역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Poulter, 2006: 42-46). 그러므로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외상을 되도록 빨리 치료하고,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로 증명되었다. 이에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회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훈련이 첨가되어야 한다(배은주, 2010: 131-132). 셋째, 상담자는 아버지의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내담자의 종교성에 따른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시도한다(Chalmers, 2005: 117-123). 특히,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심리적 외상과 손상된 감정을 탐색하고, 분석해야 한다(Fields, 2014: 89-90). 또한 상담과정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태도가 부모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은 그들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역할에도 개연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을 근거로 부모역할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상담과 치료적 효과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현장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건강한 부모역할은 가정을 바르게 형성하고, 사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며, 생산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들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아버지의 종교적 성향과 건강한 신앙태도, 신앙성숙이 부모역할에 개연성을 가지므로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상담과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성부재한 경우, 원가족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성부재의 시점과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그것이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아버지와 사별, 부모님의 별거 또는 이혼,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아버지-자녀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방향성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기를 좀 더 구분하여 학령전기(영유아기)와 학령기로 나누고, 학령기를 학교급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로 세분화하여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는 과거 원가족에서 경험한 아버지와의 관계 보다 현가족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자녀의 연령이 아버지의 부모역할 기능에 어떠한 차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애주기별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따른 질과 양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반응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자녀의 연령별 또는 학령별에 따른 후속연구를 요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영임 (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2). 125-142.
- 김성원 (2015).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영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 『기독교교육정보』, 45. 27-49.
- 김정주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배은주 (2010). “기독교가정의 부정부재와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이진화 (2012). “영적 안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안 석 (2010). 『정신분석과 기독교상담』. 서울: 인간회극.
- 임경수 (2004). 『인간발달이해와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 장금석 (2011).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태도 비교: 서울특별시 거주 초등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전현진 (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내창 (2010). “가족 내 종교 환경과 종교적 사회화.” 『한국사회』, 11(1). 3-23.
- 조선일보. 2016. 5. 11일자. “어버이날父살해 피의자 남매 ‘어머니 학대하고 버리려 한 아버지...증오.’”
- KBS 뉴스. 2016. 1. 29일자. “아들 시신 훼손’...아직 끝나지 않았다.”
- SBS 뉴스. 2015. 12. 21일자. “맞은 아이가 때리는 부모로...학대의 대물림.”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anfield, K. R. (1992). *The 7 secrets of effective fathers*. Wheaton, IL.: Tyndale.
- Chalmers, Phil (2005). *Can you handle the truth?*. Uhrichsville: Barbour Publishers.
- Clark, C. (1988). The transmission of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for parents to firstborn early adolescent 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May). 463-472.
- Dewey, J. (1969). *A common fa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40.
- Fields, L. L. (2014). *Forgiving our fathers and mothers: finding freedom from*

- hurt and hate*.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 Freud, S. (2014). *Vorlesungen zur Einfuhrung in die Psychoanalysis*. 오태환 역 (2014). 『정신분석 입문』. 서울: 선영사.
- Fromm, Erich (1971).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 Jung, C. G. (2010). *Psychology & religion*. 이은봉 역 (2010). 『심리학과 종교』. 서울: 창.
- MacArthur, J. (1998). *The pillars of christian character: the basic essentials of a living faith*. wheaton, IL.: crossway books.
- Nouwen, H. (1972). *The wounded healer*. New York: Doubleday Publishers.
- Poulter, Stephan B. (2006). *The father factor*. New York: Prometheus Publishers.
- Rice, F. P. (2008). *The Adolescent*. Boston: Allyn & Bacon.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and Chao, W. (1992). Gender difference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23-836.
- Simmons, D. (1991). *Dad the family coach*. Wheaton, IL.: Victor books.
- Smith, W. C. (1981).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Tacey, D. (2008). *How to read Jung*. 박현순 역 (2008). 『How to read 융』.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Tweedie, D. F. (2008). *The christian and the couch: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logotherap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임현만 역 (2008). 『기독교상담적 로고테라피 입문』. 서울: 그리심.
- Vaillant, G. E. (2008). *Spiritual evolution: a scientific defense of faith*. New York: Broadway books.
- _____ (2013). *Triumphs of experience: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 Harvard University: Belknap Press.
- Whitney, D. S. (2001). *Ten questions to diagnose your spiritual health*. 우수명 역 (2008).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강력한 질문』. 서울: NCD.

Abstract

The Effect of Christian Father's Childhood Experiences and Parental Intellig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Religious Well-Being

Eun-Joo Bae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the father of the children's father, parental intelligence, and religious well-being.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well-being in the influences that a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his father had on parental intellig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202 fathers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raised children as registered as Christians and attended church services regularly.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argeting the subjects. The Mother-Father-Peer Scale(MFPS) developed by Epstein(1983) to measure the relational experience with the father validated by Kim Jeong-Ju(2009) was used as the measurement tool. Furthermore, we used Parental Intelligence Scale by Hyun Mi-Sook(2004) and Spiritual Well-being Scale by Paloutzian & Ellison validated by Lee Jin-Hwa(2012) to measure religious well-being.

In order to verif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frequency, percentage, reliability, and factor-analysis using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and conducted Bootstrapping to estimate the p-value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mediating effec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intelligence according to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his father was observed.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us well-being according to the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his father was observed. Thir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intelligence according to religious well-being of the father with children

was observed. Fourth, in the case of direct effect in the influences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his father had on parental intelligence, it showed no relation between the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and parental intelligence with $\beta = -.008$. However, indirect effect was .179 showing significance of $p < .01$. Therefore, it is viewed that religious well-being has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influences father's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his father had on parental intelligence. This result proved that father's religious well-being to be an influential factor on parenting indicating that fathers raised their children to be independent and had more receptive parenting attitude, it would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eligious well-being of their children.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 between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the Christian faith structurally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model with the relevance to Christian (pastoral) counseling, youth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Finally, the results acquired through this study will be an academic impetus to Christian (pastoral) counseling area which will perform theoretical and applied researches based on related subjects presenting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Christian, Father, Children, Childhood, Relational Experience with Father, Parental Intelligence, Religious Well-Being

